

三 國 遺 事

金 完 鎮

(서울大 教授, 國語學)

I.

〈삼국유사〉는 고려 충렬왕 때에 一然이 지은 三國의 역사를 다룬 史書로서 그보다 약 1세기 반 앞선 金富軾의 〈三國史記〉와 함께 쌍벽이 됨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삼국사기〉가 그 이름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체제가 정비된 正統 史書라면 〈삼국유사〉는 正史로서의 〈삼국사기〉에 누락된 것을 보충해 주는 취지의 책이라 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 오는 얘기들을 종류별로 묶어 기술하는 데 주력하였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책을 분류하는 사람들이 〈유사〉를 혹 野史의 범주에 격하시키기도 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특성이 오늘날의 우리들에게는 더 소중한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다.

저자 一然의 俗姓은 金氏(初名은 見明, 字는 晦然), 1206년에 태어나 1289년 84세로 열반한 高僧으로 시호를 普覺이라 했다. 普覺國尊碑에 전하는 바에 따르면 그에게는 100여 권의 저서가 있었다고 하거니와 〈삼국유사〉 5권은 그의 만년 70넘어서의 저작으로 알려져 있다. 崔南善이 밝힌 바에 의하면, 一然의 高弟들이 보충한 부분이 없지 않다고 되어 있다.

〈삼국유사〉 5권은 上·下 2책으로 분장되어 전하는데, 1~2가 上,

3~5가 下를 이룬다. 내용상으로는 아홉 부류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구성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괄호 안의 로마 숫자는 권수를 표시한다.)

王曆第一	(I)
紀異第二	(I~II)
興法第三	(III)
塔像第四	(III)
義解第五	(IV)
神呪第六	(V)
感通第七	(V)
避隱第八	(V)
孝善第九	(V)

‘왕력’은 신라·고구려·백제 및 가락의 王代와 年表를 겸한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고려 태조에 의한 삼국 통일까지에 이른다.

‘기이’는 古朝鮮으로부터 시작하여 고대 여러 나라의 흥망의 사적과 신라조 역대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다. 百濟 및 後百濟에 관한 기사 3편과 駕洛國記가 뒤에 첨가되어 있다.

‘흥법’은 불교가 우리 나라에 전해 온 내력들을 적고 있다.

‘탐상’은 불탑 불상에 관한 사연들을 적은 글들이다.

‘의해’는 신라 시대의 뛰어난 學僧과 律師들의 전기를 담고 있다.

‘신주’는 密敎 神僧의 사적을 적은 것이다.

‘감통’은 정성된 행실에 감응이 나타난 사례들을 적은 것이다.

‘피은’은 이름을 드러내기를 피하며 山寺에 숨어 산 승려들의 이야기를 적은 것이다.

‘효선’은 효행과 그 응보에 관한 이야기들로 되어 있다.

이상에서 간략하게 살펴본 바와 같이 사서적인 면목이 갖추어진 것은 1·2권 즉 上冊에 해당되는 부분만이라 할 수 있고, 下冊은 전기를 포함한 각종 설화의 찬집에 치중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삼국사기>가 正史의 체통을 내세워 피기·황망한 설화같은 것을 피하며 사실의 기술과 평가에 치중하였던 것과는 달리 보고 들은 바를 순순히 적어나간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기술된 내용이 상당히 한정된 범위 안의 것이라는 것이 아쉬운 일 이기는 하지만, 저자 一然의 관심과 전문의 제약을 고려한다면 이는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생각된다. 첫째 제약은 신라 편중이라는 사실에 있으니, 삼국의 유사를 찬집한다 하면서 실제로는 거의 신라 것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다. 통일 신라의 꽤 긴 시대가 있었으니, 신라에 관한 기록이 압도적일 수 밖에 없는 일반적 사정이 있는데다가 13세기의 인간인 一然에게는 벌써 高句麗史나 百濟史에 관계된 문헌들에 접할 기회가 별로 없었을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우기 그의 출생과 활동의 무대가 지금의 경북 일부에 국한되었다는 사실도 그의 전문이 좁아지게 된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둘째로는 불교적 편향을 지적할 수 있겠으나 불교 승려의 저작이고 보면 이것도 타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의 다른 많은 저작들과 한가지로 <삼국유사>도 불교에 대하여 얘기하는 것을 본래의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한다면, 책의 이름과는 관계 없이 一然의 불교 편향 기술이라는 것도 합리화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II.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삼국유사>는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 일반 사학자들은 흔히 이러한 말들을 한다. 檀君이나 奇子에 관한 史實을 전해 주는 현존하는 유일한 史書라고, 또는 一然이 인용한 옛 史書들의 편린이나마 <삼국유사>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또는 각도를 달리하여 고대의 민속과 설화를 공부할 수 있는 중요한 보고라고.

그러나 여기서는 일반 史書로서의 <삼국유사>의 가치를 되풀이하여 얘기할 생각은 없다. 지금의 필자가 그런 일을 하기에 책임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런 종류의 글은 다른 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겠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국어학 또는 국문학에 있어서의 <삼국유사>의 위치에 한정하여 논의하기로 하거니와 특히 국어학 쪽에 치우치게 되는 것은 필자의 전공

에 따른 편향이라 이해하여 주었으면 한다.

국어국문학의 관점에서 〈삼국유사〉 제일의 가치는 향가 14수를 실고 있다는 사실에 두어져야 한다는 점에 이론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유사〉에 실린 순서대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노래 이름은 梁柱東을 따른다)

1. 慕竹旨郎歌
2. 獻花歌
3. 安民歌
4. 讚耆婆郎歌
5. 處容歌
6. 薯童謠
7. 禱千手觀音歌
8. 風謠
9. 願往生歌
10. 兜率歌
11. 祭亡妹歌
12. 擘星歌
13. 怨歌
14. 遇賊歌

신라 시대에 많은 향가가 있어서 〈三代目〉 같은 歌集의 편찬이 있었던 것을 알지만, 불행히도 오늘에 전해지지 않는 상황이고 보면 비록 14수 밖에 되지 못하는 것들이지만 이것이 있었기에 우리 문학사가 신라의 詩歌를 운위할 수 있는 것이다. 또 어학의 관점에서 말하더라도 문장 차원의 정통적 자료로서는 이보다 더 앞서는 것이 없는 것이다. 다만 아쉬운 것은 향가가 鄉札이라는 특수한 표기 방식으로 되어 있어 解讀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까닭에 어학적으로도 완전한 신라어의 모습을 확인하기 어렵거니와, 문학적 연구나 음미를 위해서도 신뢰하기에 충분한 문면이 확보되었다고는 말할 수 없는 점이라 하겠다.

一然은 향가가 기록된 여러 다른 문헌들에 접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삼국유사〉 찬술의 기본적인 태도를 六堂은 ‘述而不作’이라는 말로 표현한 일이 있거니와, 一然은 자기가 의거한 原典의 모습을 옮겨 놓는

일에 충실하고 자기 기준에 따른 통일 같은 것을 꾀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그리하여 가령 향가의 문면을 제시함에 있어 어떤 작품에서는 詩行의 경계를 띄어 적었는가 하면 다른 작품에서는 전혀 단절을 두지 않고 내려 쓰고 있는 것이다. 그 두 전형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讚耆婆郎歌

咽鳴爾處米 露曉邪隱月羅理 白雲音逐于浮去隱安支下 沙是八陵隱汀理也中 耆郎矣
貞史是史藪邪 逸鳥川理叱磧惡希 郎也持以支如賜烏隱 心未際叱勝逐內良齋 阿耶 栢
史叱枝次高支好 雪是毛冬乃乎尸花判也

處容歌

東京明期月良夜入伊遊行如可入良沙寢矣見昆脚烏伊四是良羅二勝隱吾下於叱古二勝
隱誰支下焉古本矣吾下是如馬於隱奪叱良乙何如爲理古

우리는 또 兜率歌에만 유독 이른바 解詩라는 것이 붙어 있음을 주목한다. 역시 그가 의존했던 원전에 解詩가 붙어 있어 그것을 그대로 옮긴 것이지 오직 여기에서만 一然이 漢譯을 시도한 것이라고는 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 수많은 설화는 한문으로 적힌 것이어서 정통적인 국문학 작품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들이지만, 관점에 따라서는 국문학 연구의 대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한 관점은 그것들을 한국의 한문학 작품으로서 넓은 의미의 국문학 안에 포함시키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그 한문적 표현 속에서 국문학의 심층적 요소들을 여러 다른 각도에서 살피는 것인데, 그 어느 경우에도 국어학은 거의 관여하지 못한다.

Ⅲ.

사람들이 <삼국유사>를 읽게 되는 동기나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의외의 구석에서 재미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작은 협주에 이르기까지 정성들여 읽어 볼 만한 고전

이. <삼국유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범위를 국어사 내지 국어학사로 좁혀 그러한 예를 몇 개 찾아 보기로 하자.

說者曰 未與彌聲相近 尸與力形相類 乃托其近似而相謔也.

말하는 이 가로되, ‘未’자와 ‘彌’자는 소리가 서로 가깝고, ‘尸’자와 ‘力’자는 모양이 서로 비슷하여, 마침내 그 가깝고 비슷함 때문에 서로 혼동되느니라(未尸郎條)

하나는 서로 通用되는 두 漢字의 음성에 관한 기술이고, 또 하나는 ‘ㄹ’로 읽히는 ‘尸’(=屍 주검 시)자의 기원에 대한 설명인데, 앞의 것에서는 ‘未’와 ‘彌’가 소리가 같다 하지 않고 소리가 서로 가깝다 한 것을 주의 하게 되며, 뒤의 것에서는 그 글자의 음가로 보아 도저히 ‘ㄹ’로 읽힐 수 없는 ‘尸’자가 실은 ‘ㄹ’을 첫소리로 가진 ‘力’자에 말미암는다는 가설을 제시한 것을 흥미있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이다. 하나는 언어 사실에 대한 증언이라 할 수 있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국어학적 사고의 발로라 할 수 있는 것으로 다같이 우리의 흥미를 끌기에 족한 것이다.

글자 하나 달리 쓴 것이 매우 소중하게 부각될 수도 있다. 가령 신라의 왕호로 쓰인 ‘尼師今’이 <삼국유사> ‘왕력’에서는 ‘師’자 대신에 ‘叱’자로 쓰고 있는 것이 목격된다. (두 경우에는 ‘尼叱今’ 아닌 ‘尼今’으로 적히고 있는데, 단순한 脫字인지 아니면 그렇게도 썼던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면서도 <유사>의 다른 부분에서는, 가령 <삼국사기>의 인용 부분 같은 데에서는 ‘尼師今’이라고 ‘師’자를 보이는 것이다. 아마도 ‘왕력’에서의 ‘叱’자는 一然이 의거하였을 어떤 원전에 연유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왕력’이 의거한 원전이 일부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崔致遠이 지었다는 <帝王年代曆> 이외의 것이었을 것을 생각하게까지 한다. 金富軾이 <삼국사기>에서 통렬히 비난한 바 있듯이 (이 대목은 <유사>에도 그대로 인용되어 있다.) 崔致遠은 居西干, 尼師今, 麻立干 등의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오직 ‘王’이라는 호칭으로 일관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尼叱今’의 ‘叱’자의 출처는 우리가 모르는 어떤 제3의 전적에 연유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論曰 新羅稱居西干次次雄者一，尼師今者十六，麻立于者四，羅末名儒崔致遠作帝王年代曆，皆稱某王不言居西干等，豈以其言鄙野不足稱之也。今記新羅事，具存方言，亦宜矣。

꼭 <삼국유사>에서만의 일은 아니지만, 고대의 단어들의 어형이나 의미를 확인해 준 경우들이 적지 않아 (가령 ‘皆叱知’라는 말이 奴僕을 의미한다든지 하는 것) 이들을 정성껏 모으면 고대어의 어휘 자료를 얼마간 확충시킬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런 가운데 필자는 赫居世王條의 한 협주를 특히 주목한다.

今俗訓京字云徐伐以此故也。

‘徐伐’이 중세어의 ‘서벌’에 해당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뿐더러 ‘京서울 경’에 있어서의 漢字音 ‘경’에 대한 ‘서울’을 ‘訓’이라고 일컫은 가장 이른 용례를 여기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짧은 예시에 그쳤지만 이렇게 미시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삼국유사>는 우리에게 아직도 많은 것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보고가 된다는 말로 끝맺고자 하거니와, 다만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삼국유사>라는 것이 후대의 불완전한 판본에 의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글자의 탈결이나 와전으로 의미 파악에 어려움이 생기는 부분들이 없지 않다는 점에 유의하기를 바란다.*

